

검날 위의 민주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제1야당 대표 영장 헌정사 초유 체포동의안 28일 국회 표결 민주당 "검사독재정권의 폭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법 절차에 따라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거나 한가"라며 "국정 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검찰에 파상공세를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8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결이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 표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등장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

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아하!
광주일보
아카데미



◆ 2023년 1학기 주요 강사진 ◆



이은결 미술사 김한민 영화감독 권일용 프로파일러 양정무 교수 서경석 MC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1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 ~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7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전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 (49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